

|       |                        |       |                        |
|-------|------------------------|-------|------------------------|
| 보도 일시 | 2021. 12. 21.(화) 09:00 | 배포 일시 | 2021. 12. 21.(화) 09:00 |
| 담당 부서 | 국민소통실<br>디지털소통기획과      | 책임자   | 과장 김정렴 (044-203-3061)  |
|       |                        | 담당자   | 사무관 이종민 (044-203-3067) |

## 코로나19 상처, 감사와 격려의 마음으로 치유하세요

- 국민들의 '긴급마음문자'를 삼성역 일대 대형 전광판에 실감콘텐츠로 송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긴급마음문자' 캠페인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온 우리 이웃에게 남긴 감사와 응원의 문자를 3차원 실감형 영상으로 제작해 12월 27일(월)부터 내년 1월 23일(일)까지 서울 삼성역(코엑스광장) 일대 대형 옥외전광판에 송출한다. 이 캠페인은 그동안 긴급 재난 문자에 마음 졸여 온 국민들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재난 소식이 아닌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 영상은 아나몰픽\* 기법을 활용해 영상 속 물체가 전광판 밖으로 튀어 나올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화면에 문자 창이 울리면 국민들이 서로에게 전하는 위로와 격려의 문자가 풍선으로 형상화되어 날아간다.

\* 아나몰픽: 각도에 따른 착시효과로 입체감을 극대화해 표현하는 기법

문체부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난 12월 1일(수)부터 22일(수)까지 '방역의료진', '소상공인', '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문자를 온라인으로 남기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부 문자를 선정해 캠페인 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 삼성역 일대 건물과 전광판 관리업체 협업으로 매일 3회씩 옥외전광판 5대에서 캠페인 영상 동시 송출

아울러 이번 캠페인 영상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캠페인 기간 동안('21. 12. 27.~'22. 1. 23.), 하루에 3번씩 삼성역 일대 옥외전광판 5대에 동시 송출한다. 전광판 여러 대에서 동시에 영상이 노출되는 사례는 흔치 않는데 코엑스 광장 일대 건물과 전광판 시설 등을 관리 운영하는 '더블유티씨 서울'과 '씨제이씨지브이', '중앙일보', '메가박스',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 이번 캠페인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전광판 송출(12. 27.) 이후 누리소통망(SNS) '긴급 마음문자'(<https://instagram.com/warm.message.2021>, <https://www.facebook.com/warm.message.202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 김현기 실장은 “디지털 매체들이 개인 취향에 따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중을 상대로 하는 전광판의 경우 오히려 공공캠페인의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캠페인 화면 송출(안)과 온라인 행사 포스터



□ 화면 송출(안)



□ 온라인 행사 포스터

